

12-07 (통권 제 478호)

2012. 2. 2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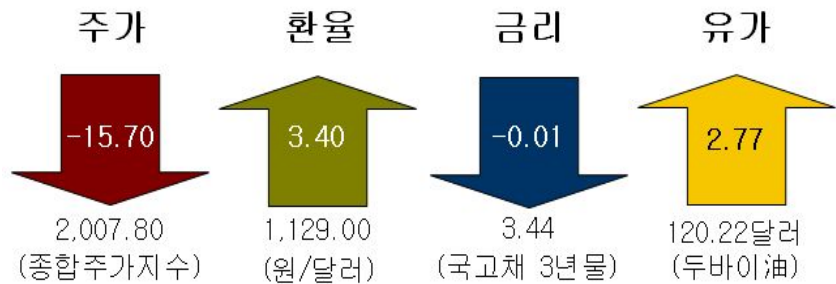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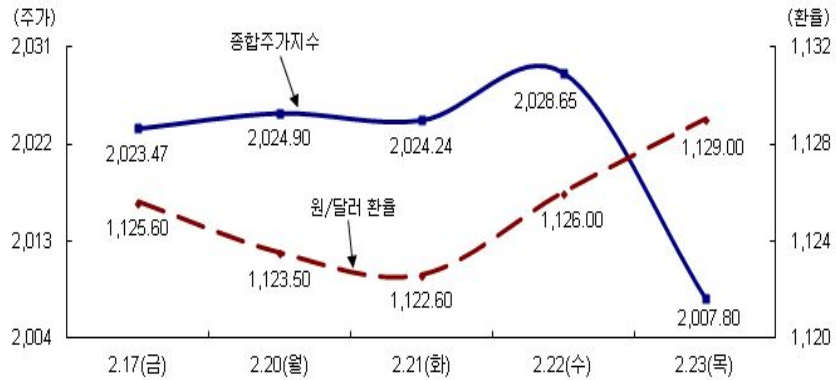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7~2.2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천 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 HRI 북한 GDP 추정 모형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8월에 보건지표인 영아사망률을 이용하여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을 개발하여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의 설명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곡물생산량추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개선하였다.

■ 2011년 북한 1인당 GDP 추정

개선된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2011년 북한의 1인당 GDP는 720달러로 2010년의 688달러보다 32달러 증가하였다.

북한의 1인당 GDP는 2011년 남한의 2만 3,749달러에 비해 3%수준에 불과하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인 중국 5,194달러, 라오스 1,204달러, 베트남 1,362달러 등과 비교해도 북한은 경제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690달러와 네팔 644달러,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735달러 등이다.

■ 2011년 북한 경제 성장의 대내외 배경

(대내) 2011년 북한 경제는 식량 작황의 개선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국가 역량의 단기적인 집중으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2011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74만 톤으로, 2010년도 442만 톤보다 7.2%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맞이하여 강성대국 건설의 상징물인 가용 식량 확보, 10만 세대 건설, 전력 문제 해결 등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대외) 대외적으로는 북중 교역 확대, 개성공단 유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주요 배경이었다. 북중 교역액은 56.3억 달러를 달성해 2010년도의 34.7억 달러에 비해 62.4%의 가파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개성공단 교역액은 17.0억 달러로 2010년의 14.4억 달러에 비해 17.7% 증가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9,771만 달러로, 2010년 2,178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I. HRI 북한 GDP 추정 모형

○ (방법)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영아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로 북한의 소득수준을 추정

-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은 보건지표(영아사망률)를 활용하여 기존 북한 GDP 추정 모형이 가진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성이 높은 추정 방법 제시
- HRI 추정모형에서 사용된 보건지표는 UN 등 외국의 구호기관에서 검증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실물지표임
-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은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위생 악화, 영양섭취 부족, 의료혜택 감소, 그리고 보건환경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북한 소득수준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¹⁾
- 북한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저개발국가의 개체특성을 고려하여 북한 GDP 추정에 정확도를 높임
- 보건지표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과 여타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격체계가 가진 문제점²⁾을 개선

○ (한계) 하지만 'HRI 북한 GDP 추정모형'에서 사용된 영아사망률은 5년간격의 자료로서 1년간의 변화를 보는데 한계를 가졌음

< 국가 간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상관관계 >



자료 : UN, Child mortality,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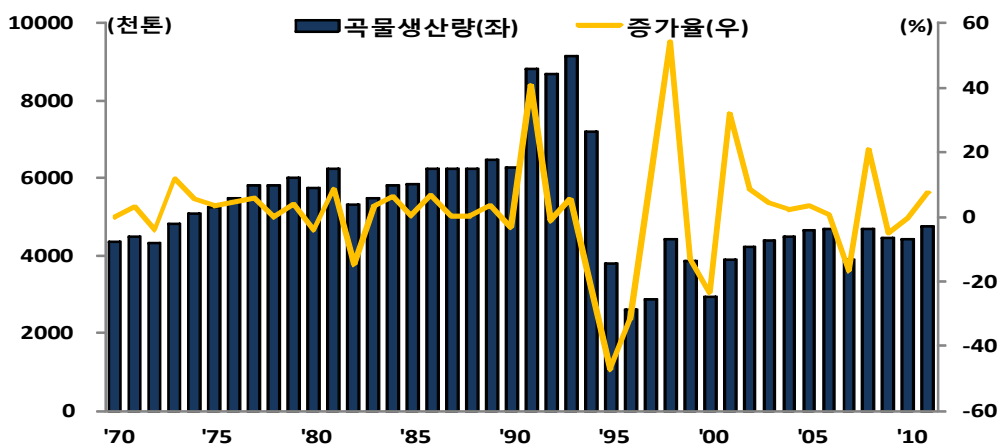
주 : 1인당 GDP와 영아사망률은 log를 취한 값

- 1) 영아사망률과 GDP의 상관관계는 -0.97로 여타 보건지표보다 높은 상관관계 가짐
- 2) 남한의 가격체계를 적용해 북한의 성장률 추정 시 과대계산 문제가 발생하며, 북한 GDP를 달러 기준으로 환산할 때 남한의 환율체계 사용할 경우 남한과의 비교시에만 유의미한 한계를 지님

○ (수정) 기존 모형에서의 5년 간격의 영아사망률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1년 간격으로 추정하여 연도별 자료를 만들어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³⁾

- 연도별 영아사망률 : UN이 발표한 북한의 영아사망률에 곡물 생산량을 이용하여 1년 단위의 영아사망률을 산출
 - 5년 간격의 북한 영아 사망률을 곡물 생산량을 이용하여 1년 간격의 영아사망률로 추정⁴⁾
 -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식량농업기구가 매년 말에 실시하는 북한 작황조사에서 발표한 생산량을 사용
- FAO가 발표한 북한의 1961년에서 2011년까지의 곡물 생산량은 평균적으로 500.7만 톤을 기록
 - 곡물 생산량은 1970년대에 약 400만톤을 기록하였으며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 곡물 생산량은 1993년 913.7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급감하여 1996년 259.3만 톤 까지 하락하여 극심한 식량난을 보임
 -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미약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1990년대 초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총 곡물 생산량 추이 >



자료 : FAO

주 : 1961년부터 2011년 까지 북한 곡물 생산량의 평균은 500.7만톤, 최소값은 259.3만톤 (1996년), 최대값은 913.7만톤(1993년)임

3) 곡물생산량을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으나 여전히 급격한 경제 변동 설명에는 한계를 가짐

4)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곡물생산량의 상관관계는 -0.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

II. 2011년 북한 1인당 GDP 추정

○ 전세계 198개국의 2000~2008년까지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영아사망률과 GDP간 상관관계 분석 후 북한의 특성을 고려하여 GDP를 추정

- 회귀식 : 종속변수에 1인당 GDP를 독립변수에는 영아사망률을 이용하여 패널분석(Panel Analysis)중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시행

$$\text{(분석모형)} \quad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i=\text{국가}, t=\text{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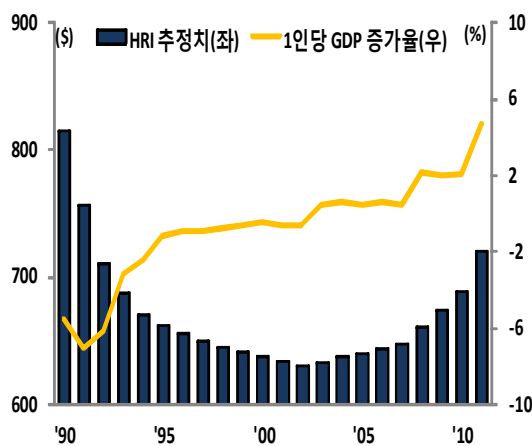
- 종속변수(y_{it}) : 198개국의 2000~2008년 까지 1인당 GDP에 log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IMF에서 발표한 자료
- 독립변수(x_{it}) : 198개국의 2000~2008년까지 영아사망률에 log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Child mortality와 UN의 자료
 - UN이 발표한 북한의 영아사망률에 곡물 생산량을 이용하여 1년 단위의 영아사망률을 산출
- 북한의 특성(u_i) : 북한의 특성은 저개발 국가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
 - 고정효과(fixed effect)의 경우 각 나라의 고유한 특성인 u_i 를 가짐
 - 북한의 특성(u_i)을 추정하기 위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하 국가 각각의 특성을 구하여 이 값에 평균을 취한 후 이를 북한의 특성이라고 가정⁵⁾

5) 소득수준 1,000달러 이하, 2,000달러 이하, 3,000달러 이하, 전체 국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소득수준 3,000달러가 북한의 개체특성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

○ (추정 결과) 회귀분석 결과⁶⁾ 2011년 북한의 1인당 GDP는 720달러로서, 2010년의 688달러보다 32달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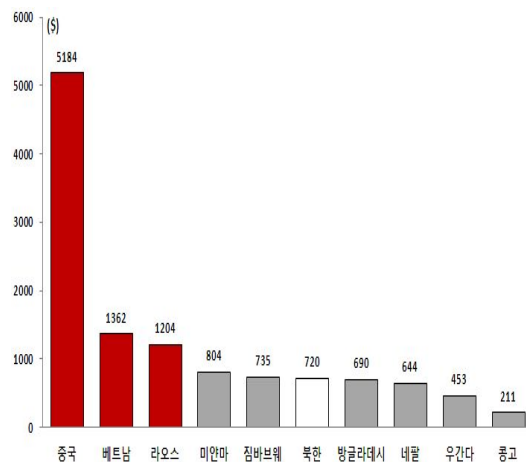
- 북한 경제의 추이 : 북한 GDP를 추정한 결과 2011년 북한의 1인당 GDP는 2010년의 688달러보다 명목기준으로 4.7% 증가한 720달러로 추정됨
 - 북한은 1987년에 1인당 GDP가 986달러를 기록하며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0년대 초에 600달러 중반까지 하락
 -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경제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북한의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한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 최근에는 2009년 674달러, 2010년 688달러, 2011년 720달러로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 국가 간 비교 : 북한의 1인당 GDP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며 남한의 약 3% 수준에 불과
 - 북한의 1인당 GDP는 공산주의 국가들인 중국(5,194달러), 라오스(1,204달러), 베트남(1,362달러) 보다 크게 낮은 수준
 -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690달러), 네팔(644달러)과 아프리카의 짐바브웨(735달러)임
 - 201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남한의 2만 3,749달러에 비해 3% 수준에 불과하며 여전히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에 해당

< 북한 1인당 GDP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임.

< 국가 간 1인당 GDP 비교 >



주1 : 2011년 기준이며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나머지 국가는 IMF 추정치

주2 : 붉은색은 공산주의 국가임

6) 회귀분석 결과 α 값은 11.13, β 값은 -0.69로 추정되었으며 모두 유의수준 1% 안에서 유의함. 영이사망률의 log값이 1단위 변할 때 1인당 GDP의 log값이 -0.69만큼 감소함을 의미

< 북한 1인당 GDP 추정결과 >

(단위: \$)

년도	남한	북한				
		HRI	한국 은행	UN	김병연	북한 공식발표
1970	255	636	-	388	587	-
1971	291	661	-	416	598	-
1972	322	686	-	448	606	-
1973	404	704	-	482	617	-
1974	559	724	-	521	639	-
1975	607	747	-	563	641	-
1976	825	772	-	577	653	-
1977	1,043	802	-	592	626	-
1978	1,443	819	-	609	700	-
1979	1,693	837	-	626	654	-
1980	1,660	856	-	642	721	-
1981	1,826	878	-	656	760	-
1982	1,927	897	-	810	744	-
1983	2,113	912	-	795	768	-
1984	2,300	929	-	745	738	-
1985	2,355	946	-	723	738	-
1986	2,702	965	-	805	732	-
1987	3,402	986	-	836	744	-
1988	4,548	920	-	764	765	-
1989	5,556	863	-	811	786	-
1990	6,303	815	1,146	735	720	-
1991	7,276	757	1,115	663	683	-
1992	7,714	710	1,013	593	599	990
1993	8,402	687	969	503	554	991
1994	9,727	670	992	384	562	722
1995	11,735	662	1,034	222	549	587
1996	12,518	656	989	479	489	482
1997	11,505	650	811	462	472	464
1998	7,607	645	573	456	412	458
1999	9,778	641	714	452	426	454
2000	11,292	638	757	462	466	464
2001	10,631	634	706	476	433	478
2002	12,100	630	762	468	465	490
2003	13,460	633	818	471	476	524
2004	15,082	637	914	473	478	546
2005	17,531	640	1,056	549	497	-
2006	19,722	644	1,108	578	496	-
2007	21,695	647	1,152	601	471	-
2008	19,296	661	1,065	555	-	-
2009	17,193	674	932	499	-	-
2010	20,759	688	1,074	-	-	-
2011	23,749	720	-	-	-	-

Ⅲ. 2011년 북한 경제 성장의 대내외 배경

○ (대내) 2011년 북한 경제력의 개선 배경으로 올해 식량 작황의 개선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단기적으로 집중한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임

- 농축산업 부문 : 식량농업기구(FAO)가 12월에 발표한 2011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74만 톤으로 2010년 442만 톤보다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쌀 생산량은 248만 톤으로 2010년 243만 톤보다 2.2% 증가, 옥수수 생산량은 2010년 186만 톤보다 9.4% 증가한 203만 톤을 기록할 전망
 - 북한의 가축 현황은 소, 돼지의 경우 각각 57.7만 두, 226.9만 두를 기록하며 정체를 기록, 닭, 토끼 등은 각각 1584.3만 두, 3,201만 두로 큰 폭으로 증가
- 강성대국 건설 :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맞이하여 식량 확보 ,10만 세대 건설, 전력 문제 해결 등에 국가의 역량이 집결됨
 - 북한은 2011년 가용 식량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교역 장려, 해외 원조 단체와의 접촉 강화, 해외주재원 및 무역성이 해외로부터 일정량의 식량을 조달할 것 지시
 - 전력부분에서 희천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백두선군청년발전소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가 완공시 총 40만 kw의 전력 공급이 증가
 -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은 강성대국 진입 상징물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건설 재원 마련, 자재 공급, 공사 진행을 위해 전국가적 역량을 집중

< 북한 곡물 생산량 >

(단위 : 1,000톤, %)

	2006-2010 평균	2010	2011(E)
쌀	2,226	2,426	2,479 (2.2)
옥수수	1,711	1,858	2,032 (9.4)
밀	145	83	127 (53.0)
기타	138	55	104 (89.1)
합계	4,220	4,422	4,742 (7.2)

자료 :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북한 가축 현황 >

(단위 : 1,000두, %)

	2009	2010	2011(E)
소	576 (0.0)	577 (0.2)	577 (0.0)
돼지	2,150 (-1.3)	2,248 (4.6)	2,269 (0.9)
염소	3,570 (3.7)	3,556 (-0.4)	3,657 (2.8)
닭	13,859 (-1.5)	14,943 (7.8)	15,843 (6.0)
오리	8,900 (51.4)	5,936 (-33.3)	6,002 (1.1)
토끼	28,500 (7.7)	28,571 (0.2)	32,01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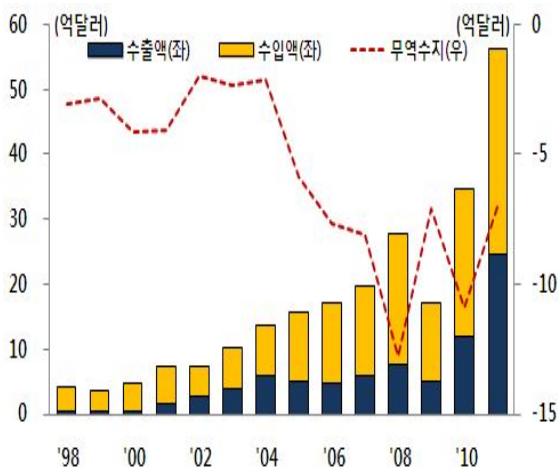
자료 :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대외)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무역의 확대,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성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등 역시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기여

- 북중 교역 : 2011년 북중교역액은 56.3억 달러를 달성해 전년동기 대비 62.4%의 가파른 증가세를 시현
 -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7.4%가 증가한 24.6억 달러를 기록,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38.9%가 늘어난 31.7억 달러를 기록
 -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010년도 -10.9억 달러 적자에서 2011년도 -7.0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축소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상위 5개 품목인 무연탄, 광물, 의류제품, 철강, 어패류의 비중이 87.2%를 차지
 -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은 9.5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2.9억 달러에 비해 226.4% 증가, 광물의 대중국 수출은 3.4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2.0억 달러에 비해 70.7% 증가로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
 - 의류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3.0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1.2억 달러에 비해 152.1% 증가
 - 철강의 대중국 수출은 1.3억 달러로 전년동기의 0.8억 달러에 비해 53.0% 증가

< 북중 무역규모 >



자료 : 무역협회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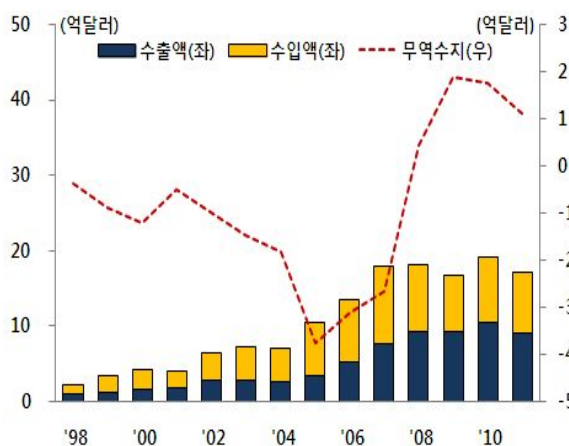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증감률
1위	무연탄	291.2	950.5	226.4
2위	광물	196.7	335.8	70.7
3위	의류제품	120.0	302.4	152.1
4위	철강	81.9	125.3	53.0
5위	어패류	51.2	67.9	32.7

자료 : 무역협회

주 : 2010년, 2011년은 각각 1~10월까지 누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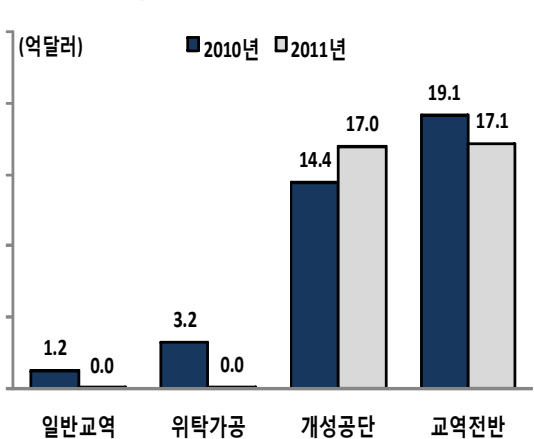
- 남북 교역 : 남북 무역 규모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정체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0.4% 감소한 17.1억 달러를 기록
 - 북한의 남한에 대한 수출액은 9.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 수입액은 8.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
 - 북한의 남한과의 무역수지는 2010년 1.8억 달러 흑자에서 2011년 1.1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
- 유형별 남북교역을 살펴보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액의 교역실적은 미미하였으나 개성공단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
 - 2011년의 일반 교역액은 2010년의 1.2억 달러에 비해 -99.8% 감소한 20만 달러를 기록
 - 위탁 가공액 역시 370만 달러에 그치며 2010년의 3.2억 달러에 비해 -98.8% 감소
 - 개성공단 교역액은 17.0억 달러로 2010년의 14.4억 달러에 비해 17.7%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남북 무역규모 >



자료 :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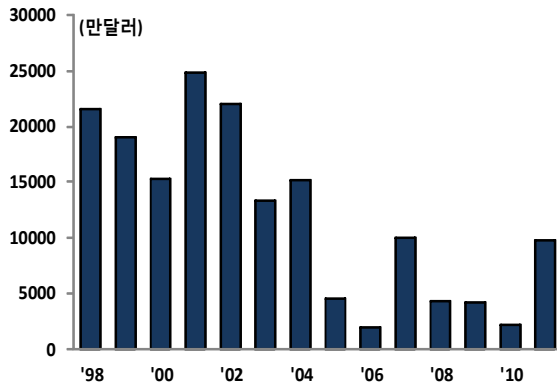
< 유형별 남북교역 추이 >



자료 :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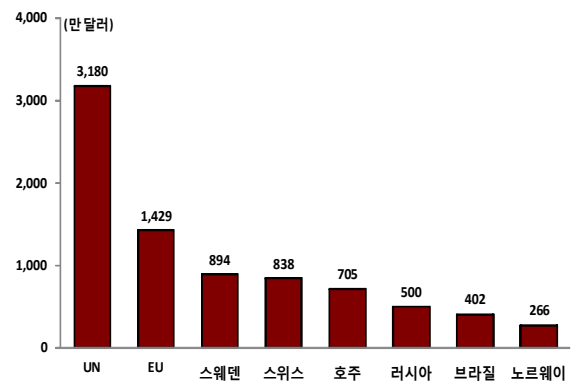
- **국제사회 지원**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북한이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기간에 집중된 이후 급감하였으나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
 - 북한은 2011년에 해외 원조단체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그들의 모니터링 강화 및 폐쇄 지역 접근 요구에 훨씬 협조적
 - 2011년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9,771만 달러로 2010년 2,178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국가별 지원액은 UN의 긴급 구호자금이 3,180만 달러로 전체의 32.7%를 차지, EU는 1,429만 달러, 스웨덴 894만 달러 스위스 838만 달러로 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 2011년 국가별 지원액 >



자료 :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

-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일부 시장의 도입, 신의주·나진선봉 등 경제 특구 도입을 통한 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제 상황이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됨**
 - 북한 경제의 도약을 위해 경제기반의 구축과 농업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 개선이 요구됨
 -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에너지, 자원개발, 물류망 등 경제기반구조의 구축이 필요
 - 북한의 1헥타르 당 4.3톤의 벼 수확량은 한국의 약 60%에 불과하여 북한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투자, 경작법등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이 요구

김천구 선임연구원(02-2072-6211, ck1009@hri.co.kr)

<부록-1> 기존 북한 GDP 연구 사례

○ 기존의 북한 GDP 추정 사례는 CIA·버그슨 방법, 실물지표법, 한국은행 추정법, 김병연의 연구 등이 있음

① CIA·버그슨 방법

- (방법) 기준 연도의 소련 GDP를 추정한 이후 경제 각 부문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성장률 계산. 이후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활용하여 미국 대비 소련의 GDP 비중 계산
- (한계) 이론적으로 가장 정교한 추계방법이지만 1차 통계자료가 풍부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하여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한 북한 GDP 추정시 부적합

② 실물지표법

- (방법) 국민소득과 밀접한 연관 가지는 경제변수, 사회변수, 인구변수 등의 실물지표를 이용하여, 이들과 소득과의 일반적 관계 회귀방정식의 형태로 추정
- (한계) 경제변수인 전기소비량, 에너지소비량, 시멘트 생산량 등은 부정확한 추정치로서 상당한 측정오차 존재

③ 한국은행 추정법(복수 국가 구매력 추정법)

- (방법) 북한의 당해 생산량 관련 기초 자료를 관계기관(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남한의 가격 체계를 이용하여 남한 원 표시 북한 GNI 추정
- (한계) 한국은행이 사용한 생산량 자료 정확성 문제, 남한 가격 체계 이용하므로 과대 계산, 남한과의 비교시에만 유의미

④ 김병연

- (방법) 북한 경제의 세 가지 요소인 산업별 성장률(공업, 농업, 서비스업)과 구성비 이용 가중평균법에 의거하여 추정
- (한계) 한국은행이 발표한 광공업 성장률 추정치와 식량작물생산량 성장률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성장률 추정치와 추세적으로 큰 차이 없음

<부록-2> 2011년 국가별 1인당 GDP(US \$)

(단위 : \$)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	룩셈부르크	122,272	41	에스토니아	16,880
2	카타르	97,967	42	트리니다드 토바고	16,693
3	노르웨이	96,591	43	앤티가바부다	16,284
4	스위스	84,983	44	바베이도스	15,799
5	호주	66,984	45	헝가리	14,808
6	UAE	66,625	46	우루과이	14,672
7	덴마크	63,003	47	크로아티아	14,529
8	스웨덴	61,098	48	적도기니	14,374
9	네덜란드	51,410	49	칠레	13,970
10	캐나다	51,147	50	폴란드	13,967
11	싱가폴	50,714	51	러시아	13,236
12	오스트리아	50,504	52	리투아니아	13,190
13	핀란드	50,090	53	브라질	12,917
14	아일랜드	48,517	54	세인트키츠네비스	12,687
15	미국	48,147	55	라트비아	12,226
16	벨기에	48,110	56	세이셸	11,117
17	쿠웨이트	46,461	57	가봉	10,982
18	일본	45,774	58	카자흐스탄	10,951
19	독일	44,556	59	멕시코	10,803
20	프랑스	44,401	60	아르헨티나	10,640
21	아이슬란드	43,226	61	터키	10,576
22	영국	39,604	62	레바논	10,474
23	뉴질랜드	38,227	63	베네주엘라	10,409
24	이탈리아	37,046	64	보츠와나	8,844
25	브루나이	36,521	65	루마니아	8,666
-	홍콩	34,393	66	말레이시아	8,617
26	스페인	33,298	67	모리셔스	8,520
27	이스라엘	32,298	68	코스타리카	8,489
28	사이프러스	31,435	69	파나마	8,421
29	그리스	27,875	70	남아프리카 공화국	8,342
30	슬로베니아	25,939	71	그레나다	7,913
31	한국	23,749	72	세인트루치아	7,522
32	바레인	23,410	73	아제르바이잔	7,510
33	바하마	23,175	74	수리남	7,281
34	포르투갈	22,699	75	불가리아	7,243
35	몰타	22,058	76	콜롬비아	6,980
36	오만	21,681	77	도미니카	6,833
37	타이완	21,592	78	몬테네그로	6,668
38	체코	20,925	79	몰디브	6,499
39	사우디아라비아	19,890	80	세인트빈세트그레나딘	6,447
40	슬로바키아	17,889	81	세르비아	6,267

순위	국가명	1인당GDP	순위	국가명	1인당GDP
82	이란	6,260	122	필리핀	2,255
83	벨라루시	6,118	123	볼리비아	2,246
84	나미비아	6,087	124	온두라스	2,105
85	페루	5,614	125	몰도바	2,022
86	도미니카공화국	5,406	126	수단	1,939
87	자메이카	5,376	127	키리바시	1,832
88	태국	5,281	128	파푸아뉴기니	1,712
89	중국	5,184	129	가나	1,588
90	앙골라	5,061	130	나이지리아	1,541
91	마케도니아	5,012	131	우즈베키스탄	1,529
92	알제리	5,001	132	인도네시아	1,527
93	보스니아	4,715	133	지부티	1,500
94	튀니지	4,593	134	예멘	1,460
95	요르단	4,542	135	솔로몬	1,457
96	투르크메니스탄	4,362	136	상투메프린시페	1,382
97	에콰도르	4,352	137	베트남	1,362
98	벨리즈	4,349	138	잠비아	1,355
99	알바니아	4,131	139	카메룬	1,234
100	엘살바도르	3,831	140	모리타니	1,227
101	피지	3,806	141	라오스	1,204
102	콩고공화국	3,792	142	니카라과	1,202
103	카보베르데	3,737	143	파키스탄	1,164
104	통가	3,648	144	세네갈	1,096
105	우크라이나	3,575	145	코트디부아르	1,049
106	인도네시아	3,469	146	레소토	1,040
107	파라과이	3,421	147	키르기스탄	970
108	스와질랜드	3,332	148	차드	920
109	이라크	3,306	149	캄보디아	912
110	가이아나	3,202	150	케냐	882
111	과테말라	3,177	151	타지키스탄	862
112	모로코	3,162	152	코모로	853
113	몽고	3,131	153	미얀마	804
114	조지아	3,098	154	말리	796
115	바누아투	3,081	155	베닝	756
116	시리아	3,050	156	아이티	739
117	사모아	3,049	157	짐바브웨	735
118	아르메니아	3,048	158	북한	720
119	이집트	2,922	159	방글라데시	690
120	스리랑카	2,864	160	부르키나파소	670
121	부탄	2,299	161	동티모르	649

순위	국가명	1인당GDP
162	네팔	644
163	감비아	620
164	기니비사우	586
165	르완다	585
166	아프가니스탄	575
167	모잠비크	551
168	탄자니아	550
169	투고	511
170	중앙아프리카	483
171	에리트레아	473
172	우간다	453
173	기니	438
174	마다가스카르	428
175	니제르	428
176	에티오피아	351
177	말라리	350
178	시에라리온	347
179	라이베리아	258
180	콩고민주공화국	211
181	부룬디	197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2.8	1.8
유로 지역	1.8	0.4	1.0	0.4	0.3	1.6	0.8	0.2	0.2	-0.3	-0.5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17일	2월 2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2.00	2.00	0.00%p
	엔/달러	81.19	80.66	77.66	78.89	80.32	1.43¥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131	1.3248	0.0117\$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950	12,985	35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384	9,596	21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5	3.44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25.6	1,129.0	3.4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23.5	2,007.8	-15.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17일	2월 2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3.37	107.68	4.31\$
	Dubai	88.80	106.75	104.89	117.45	120.22	2.77\$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17.39	323.40	6.0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2	4.2	3.4	3.5	3.4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